스티븐 홀의 현상학적 건축구성방법론에 관한 연구

-현상학적 개념의 건축적 공통부분을 중심으로-

A Study on Phenomenological Application Methodology of Architectonics of Steven Holl

- Focus on Architectural Common Ground of Phenomenological Concepts -

임 기 택 ▌ Lim, Ki-Taek

정회원, 부경대학교 건축학과, 조교수

Abstracts

Steven Holl is outstanding architect who has been applied his phenomenological thinking to his works. he has been reported that he had adhered to focus his interest on coherent phenomenological theme and sublimated his architectural concept succesfully. This study focuses on relationship how phenomenological concept has common ground with architectural parts and with the study on phenomenological application methodology of architectonics of Steven Holl. In the case of Holl, with the theme of sense and flesh, he molds phenomenologically sensitive space. His works contains coherent phenomenolgical concepts such as distrust of rationality, synthesis of consciousness, and qeustions of perception. The Methodologies of connection with environment(nature or bridge), regional values, placeness, light and time are considered in his works(books and architectural works) as anchoring, interwining and parallax for phenomenological process in his concepts. His methodologies of enlisted works contain many valuable concepts of phenomenological intuition and would be applicable to contemporary and future architecture for humanism.

Keywords

Steven Holl, Phenomenology, Synthesis of Consciousness, Dwelling, Placeness, Poesis

키워드

스티븐 홀, 현상학, 의식의 종합, 거주, 장소성, 생성

* 이 논문은 2013학년도 부경대학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PK-2013-0388)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스티븐 홀은 현상학적 개념을 그의 건축에 접목시키는데 있어서 탁월한 건축가이다. 그는 현상학적인 주제를 일관적으로 그의 작품에 적용하여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각과 신체의 수용과 관련된 건축적 주제는 계속적인 화두였으며 성공적으로 철학적 사유를 건축적 표현으로 승화시켜 주목받아왔다.

본 논문의 목적은 훗설, 하이데거, 그리고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적 철학개념이 그의 건축에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계성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면서 그의 작품과 현상학적 철학개념의 공통분모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다.

본 논문을 통해 신체의 지각을 통해 건축적 구성과 함께 현상학적 개념과 맞물려 어떤 방식으로 구체화되고 경험할 수 있게 만드는가에 대한 이해를 하고 이를 통해 현상학적 건축개념이 기존의 건축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에 대해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지각에 대해 이해하고 현상학적 건축적 구성방법론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1장 서론을 거쳐 2장에서는 훗설, 하이데거, 메를로 퐁티에 이르는 현상학의 계보를 살피면서 건축과 관련된 현상학적 기본사유에 대해서 살펴보며 소결에 이르게 될 것이다. 3장에서는 2장에서의 현상학적 기본개념과 건축부문에서 논의되는 주요한 현상학적 관념들의 공통분모에 대해서 살펴보고 현상학적 건축방법론이 지니는 의미와 건축적 가능성 및 이성의 폐해를 극복하게 된 요소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4장에서는 현상학적 건축방법론을 통해 스티븐 홀의 시간의 종합과 교량과 사용자 중심의 접근, 시학적 어휘접근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공통분모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후 5장 결론으로 이어질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스티븐 홀의 현상학적 건축구성 방법론이 어떻게 이성의 폐해를 극복하고 현대성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단초를 제공하여 건축구성방법론을 정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2. 현상학적 개념의 발전과정

2.1 훗설의 현상학적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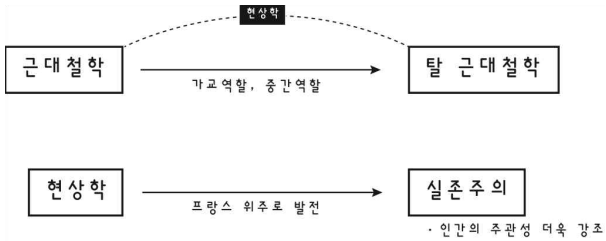

그림 1. 현상학의 의미와 역할

훗설은 인간을 둘러싼 자연과 관계된 문제보다는 순수하고 관념적인 지각의 세계에서 모든 사물이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해서 탐구했다. 그는 근대철학과 현대/탈현대 철학을 잇는 가교역할을 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현상학은 생각하는 주체를 인정한다. 그런 면에서는 주체철학의 계보를 잇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상학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비판한다. 현상학자들은 이러한 사고자체가 매우 폭력적인 서구사회의 행태를 가져오는데 일조했다고 생각한다. 현상학은 전통적인 형이상학적 철학과 대립적인 흐름가운데 탄생했다. 이러한 흐름을 통해 의도적인 분리를 극복할 수 있는 사고체계가 확립된 것이다.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현상학은 우리주위에서 벌어지는 현상에 대하여 주관적인 탐구를 추구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외부에 사물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생각하는 주체가 객체(사물)를 그대로 파악하고 사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는 것만을 믿는 불가지론자의 태도나 실증주의적 사고체계가 모두 그런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감각기관은 무척 취약하다. 인간의 감각은 이렇게 취약한 능력 때문에 ***'의도적으로 분리하여 사고한다'*** 라는 것에 대해 비판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게 된다. 취약한 능력으로 인해 의도적으로 분리하여 사고하는 가운데 충분히 오판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유명한 현상학의 **'무전제의 원리'**[1]가 등장한다.

다음의 다이어그램은 주체의 명증한 의식으로 객체

1) '무전제' 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도 전제하지 말라는 뜻이다. 즉, 외부세계를 좀 더 정확히 알기 위해 모든 선입견을 버려야 한다는 철학적 주장이며 '완전히 경험하고 알기 전까지는 판단을 좀 기다리자' 라는 것이다. 우리의 의식은 비어있는 백지이며 그 비어있는 공백 가운데 대상을 중간적인 매개물이 없이 직접 맞닥뜨리면서 생기는 경험과 의식이 상호관계를 맺으면서 생기는 의미를 중시한다.

를 바라보는 자세를 버리고 판단을 일단 유보하기 위해 미완성의 빈공간void으로 놔둔 상태에서 외부의 대상을 계속해서 경험하면서 의식하고 있는 나와의 관계를 맺음으로써 관계의 지향성이 생기고 의미가 생성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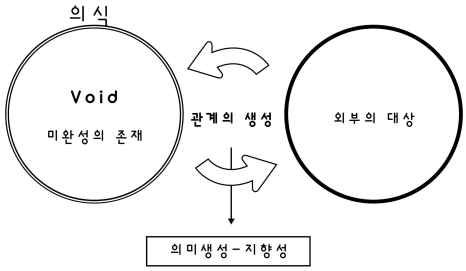

그림 2. X+Y와 (X+Y)의 비교-빈괄호 괄호속에 대해서는 판단중지를 선언함

현상학적 환원은 경험을 다른 모든 것들로부터 분리시킨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의식속의 종합'을 중요시한다. 이전의 주체적 사고(데카르트적 사고)는 주체와 객체를 의도적으로 나누어 X+Y의 공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X와 Y는 명백하게 다르고 전혀 다른 두개가 되는 사고이다. 그러나 만약 X+Y에 괄호를 쳐서 (X+Y)가 된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괄호 안의 X+Y를 하나로 생각하는 것이다. 흔히 이것을 가리켜 **'괄호치기'**라고 이야기한다. 괄호치기를 통해 전체주의적인 일방향의 사고 및 주체와 객체를 의도적으로 나누는 사고를 극복할 수 있는 획기적인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 그렇게 되면 두개가 아닌 하나로 묶어 생각할 수 있는 틀이 생긴다. 즉, 주체와 대상을 지향성으로 한데 묶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한데 묶어 사유하는 가운데 **'관계'**가 생기고 **'의미'**가 생기면서 **지향성**이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사고의 전환을 통해 주체사고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현상학적 사유의의 성립계기가 마련되었던 것이다.

2.2 하이데거의 현상학적 개념

하이데거는 건축에서 장소성과 기억 등의 요소들을 논할 때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철학자이다. 하이데거는 훗설의 제자로서 훗설의 현상학적 사고관을 수용하여 인정받고, 이후 훗설의 사고를 넘어서는 사유를 제시했다. 하이데거는 인간 자신 그리고 다른 모든 인간을 포함한 인간 세상에서 인간을 둘러싼 모든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것들이 어떻게 관계 맺어지는지에 대해서 경험의 해석적 구조를 통한 탐구를 진행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흐름을 해석학적 현상학이라고 부른다.

그는 **'존재'**와 **'존재자'**를 구분하였다. 먼저 존재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것'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을 말한다. 이와는 달리 존재는 그러한 존재자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무엇'**을 의미한다. 이것을 '것'으로 표현하는 것은 언어적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존재**는 우리가 보거나 만질 수 없는 것이고 존재자는 구체적인 사물과 같은 것이다. 우리는 존재자를 바라볼 때 인간으로부터 출발하여 사고해야 한다. 다시 말해 존재자는 존재(인간)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달리 말해 존재로부터 시작되어 존재자로의 방향성이 생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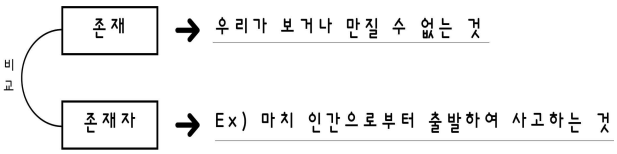

그림 3. 존재자와 존재의 차이

그래서 그는 존재와 존재자(인간) 즉, **현존재(다자인 dasein)**의 개념을 만들었다. 일차적으로 하이데거가 말하는 현존재Dasein란 '거기Da 있음sein'이라는 의미이다. 즉, 현존재는 거기에 존재하면서 존재하는 가능성을 의미하며, 현존재의 본질은 바로 그의 실존에 놓여 있다. 이때의 실존성은 '세계-내-존재(Das in-der-Welt-sein des Dasein)', '더불어 있음(공동 현존재, Mitdasein)', 그리고 '처해 있음(상태성, 精狀性, Befindlichkeit)'과 '이해'의 실존의 범주를 갖는다. 즉 세계 내에 연결된 존재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망치를 생각할 때 망치라는 객체는 망치의 형태와 재료, 혹은 단순한 쓰임새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존재가 아니라 단순히 존재자일 뿐이다. 하이데거는 존재자는 단순한 물질차원의 객체를 의미하고 나를 통해 그 물질이 어떠한 관계를 맺으면서 사용되느냐에 따라 그 존재자의 '존재' 의미가 생성되게 됨을 중시한 것이다. '존재자'인 망치는 인간으로부터 출발하여 무언가의 존재가 될 수 있다. 즉, 인간의 유익을 위하여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다. 이것은 기존의 데카르트적 사고와는 매우 다른 생각이다. '나라는 인간의 존재를 통해서 의미를 획득하는 망치는 나라는 존재와 어떤 관계의 존재자가 될 것인가' 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현상학적 접근에서는 '나'라는 인간의 존재와 관계 맺는 망치는 어떠한 관계가 되어야 할 것인가? 라는

지향성이 중요해진다. '칼knife'이라는 존재자는 선량한 나를 통하여 사고하고 쓰인다면 선량한 도구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그것을 악한 사람이 사용하는 경우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인간성과 휴머니즘에 입각한 존재와 존재자로서의 사고를 생각하면 세상의 각 주체들과 물질 및 객체들은 바람직한 쓰임새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전통철학에서 인간이 객체를 바라보고 외부에서 다가가는 것을 중시했다면, 현상학적인 사유에서 존재(외부의 객체)를 인간 내부로 향하는 존재는 사유를 만들어 내게 되었으므로 실로 대단한 전환적 사고를 만들어낸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타자화' 되어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거주dwelling'** 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의 세계-내-존재는 하이데거 사유의 핵심중 하나이다. 이를 통해 인간은 '세계내의 의미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 도구적 이성에 의해 휘둘리거나 소외되는 존재가 아니라 현존재는 도구를 통하여 자신을 배려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관계로 변할 수 있다고 하이데거는 생각했다.

2.3 메를로 퐁티의 현상학적 개념

현상학의 대가로 현재까지도 매우 활발하게 담론화되고 있는 철학자로 메를로 퐁티가 있다. 그의 사유는 오늘날의 가상현실과 현상을 받아들이는 주체와 객체와의 관계가 더욱 모호해지는 상황속에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더욱 주목받고 있다.

메를로 퐁티는 인간의 지각知覺을 자연의 한 부분으로서 인식하며, 어떻게 지각이 구성되는지 또는 자연적인 세계에서 모든 것을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이는지에 대해 탐구했다. 현상학은 철학사상으로 발전했지만 모든 것의 본질에 대한 탐구를 위한 학문이라기보다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현상'에 대한 규명을 위한 일반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메를로 퐁티가 관심을 갖는 부분은 우리의 몸을 매개로 하여 세계와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 하는 점이다. 관계를 맺는 기관 즉, 우리의 감각이 어떻게 세계와 반응하여 우리에게 다가오는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사유주제이다. 그는 이러한 요소들이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어나가면서 사유의 체계가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인간의 몸을 대상으로 실험을 통해 연구를 진행했다. 인간의 지적 사유에 있어서 퐁티는 **'몸과 지각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철학분야는 그의 사유체계 이전에는 전통적으로 관념적인 분야였지만 그는 관념론과 생리적인 몸과의 관계를 연관시켜 사유함으로써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다. 그는 의식이 지각과 분리가 능하다는 생각을 비판하고 육체를 분리시킬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었으며 몸의 체험을 통한 사유를 중요시했다. 여기서 우리는 그의 철학이 훗설의 판단중지 및 현상학적 환원의 사유의 계보를 잇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일단 판단을 중지하고 우리의 몸을 중심으로 하여 받아들여지는 감각과 정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정확한 판단을 하면서 사유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생산적 요소까지 포함시켜 사유를 진행시켰다. 그는 이러한 사유체계를 **'지각의 현상학'** 으로 명칭했다.

의식이 명료한 상태에서 행해지는 '과학'은 실증주의적 학문이고 무언가를 압축하여 기호화시켜 표현하는 학문이다. 일단 과학적으로 기호화되면, 적어도 과학분야에서 이것의 예외는 있을 수 없다. 복잡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도 간단한 수식으로 대표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일견 폭력적이라고도 볼 수 있다. 한편으로는 기호에 의존적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사유는 자연현상의 일부만을 표현할 수 있을 뿐이다. 자연과의 관계를 표현할 수는 없다. 따라서 외눈박이와 같은 사고로 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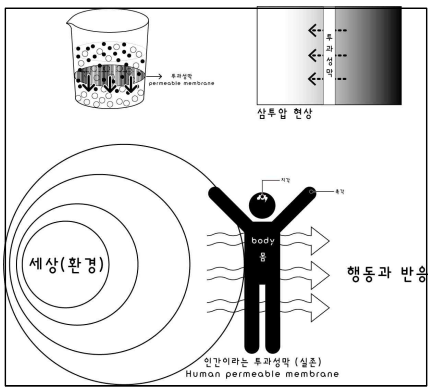

그림 4. 삼투압 과정과 인간의 몸으로서의 삼투작용

퐁티는 운동감각의 실질적 **'아프리오리'**가 몸과 세계관계를 관통하여 이어져 있다는 표현을 즐겨 사용한다. 그는 우리가 몸을 통해서 나와 세계의 접촉면과 경계면들의 상호작용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선험적인 지식이 있다고 해도 개별적으로 세계와 맞닥뜨려 경험하면서 새로운 깨달음으로 나아갈 때만 진정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퐁티는 선험적 지식이라고 하더라도 판단을 중지하고 경험하면서 채워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한다. 이 또한 훗설의 사고를 잇고 있는 것이다.

이성이 신봉되는 소위 이성과 대상이 철저하게 분리되어 사유하는 체계와는 달리 이 사유는 주체와 감

각 세계가 상호소통하면서 누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정도의 하나가 되는 경지를 통해 경험하고 사유하는 체계로 탄생되었다. 앞서 살펴본 괄호치기를 넘어서서 완전히 화학적으로 융합하는 지경에 이르는 것이다.

끊임없는 상호작용은 우리의 몸이 마치 삼투압을 하게 하는 막처럼 세상의 외적 변수에 반응하여 반작용으로 특정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몸과 세계는 끊임없는 상호 정보의 교환작용, 상호작용을 통해서 과학적이거나 실증적인 내용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세계에 눈이 떠지게 될 것이다

하이데거 식으로 말하면 인간은 물음을 던지는 '존재자dasein'이고, 동시에 '세계-내-존재'이면서 동시에 세계를 향해 나아간다. 우리는 몸을 통해 세계와 반응하며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퐁티는 두 가지 모순된 성질을 가진 세계에 주목했다. 이미 구성되어져 있는 세계에 살아왔던 자신의 신체는 지금 현재 새로운 현상과 사물을 만나면서 반응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새롭게 구성되고 있는 세계이다. 우리는 세계에 던져져서 불가피하게 세상과 관계 맺으면서 살아나가야 하는 실존이다. 우리는 인간이라는 어쩔 수없이 한계를 지닌 신체를 가지고 세계를 이해하며 실존한다. 우리의 신체는 세계와 나의 삼투압과 같은 막이며 여기에 많은 것들이 투과되면서 경험되고 판단하게 된다. 그 가운데 이성의 폐해로 벌어지는 다양한 요소들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 건축은 세계속에 존재하며 나의 신체와 감각과 실존과 항상 관계되어 있으므로 현상학적 개념과 자연스럽게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3. 건축과 관련된 현상학적 공통분모

3.1 거주의 개념(장소성)과 연결(bridge)의 개념

현재 현상학과 실존주의 그리고 몸철학과 관련되는 건축적 키워드는 풍토건축, 지역주의 , 컨텍스튜얼리즘(지역을 기본으로 하는 옛 기억과 조상의 지식이 녹아들어 가 있는 공간 및 표현), 장소의 특성(장소성)을 중시하는 건축, 공간의 시학詩學과 같은 태도, 기억을 매개로 구축되는 건축, 신체적 경험을 중시하는 건축, 움직임가운데 경험하게 만드는 건축, 몸과 관련된 부분이 존재하는 건축(공감각적 건축), 비판적 지역주의(케네스 프램프턴), 사이버스페이스와 몸철학의 관련 분야와 건축적 경험, 지각, 경험을 중시하는 건축적 흐름이 있다.

현상학과 관련해서 건축적으로 우선 생각해보아야 할 개념들이 있다. '구축build'과 '거주dwelling'의 개념이 그것이다. 이것은 하이데거가 생각했던 개념이다. 하이데거는 존재와 존재자와의 개념을 주창하면서 시적詩的 해결방법이 이성의 폐해적 사고방식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믿었다. 하이데거가 말하는 거주한다는 것은 대지위에 있는 것on the Earth이며 이미 하늘 아래Under the sky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우리는 대지와 하늘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친숙한 키워드인 '세계-내-존재'이다.[2)]

건축은 무엇인가를 생산하고 또한 생산이 되어 무엇인가가 존재하도록 이끄는 것이라면, 결국 짓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무엇인가가 존재하도록 하는 축조, 짓는 것(축조築造)build에서 사유는 시작된다. 여기에서 '무엇인가가 존재하도록' 에서 이 '무엇'이 바로 거주dwelling이다. 거주는 사람과 장소간의 총체적인 관계를 의미한다. 하늘과 사이에서 거주하는 것은 다양한 중간물multifarious in-between속에 정주settle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거주'는 건설해서 당연히 거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건설의 행위'가 '존재'가 되도록 생산해 놓은 것이다. 물리적 집이라는 존재자가 아니라 존재가 될 수 있는 행위를 통해 장소가 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기능에 따라서 무작정 집이나 방을 지어놓고 '들어가서 살아라' 하는 개념이 아니라 처음부터 거주자를 생각하여 '어떻게 지어서 어떤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인가', '거기에서 거주할 사람의 특성을 고려하고 거주하면서 어떻게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할 수 있을까'를 먼저 고려하는 태도이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생각할 때 그 거주자라는 존재와 일치하는 존재자로서의 거주공간을 만들 것인가가 중요해진다.(괄호치기) 이런 방식으로 계획하고 구축한다면 전자와는 매우 다른 결과물이 될 수 있으며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거주dwelling의 개념으로 발전될 수 있다고 그는 생각한 것이다. 이것은 데카르트적인 태도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거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향성이 생기는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을 실현시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주위의 것과 동떨어진 것을 짓는 것이 아니라, 사계절 속에 땅 위에, 그리고 하늘아래 신들 앞에, 그리고 인간

2) Michael Hays 편역, 1968년 이후의 건축이론, 봉일범 역, 2003, p522

의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계획하는 것이며 이것은 데카르트와는 다른 생각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항상 존재와의 연계성을 생각하는 태도이다. **'(장소)~에 산다to reside'**는 의미는 스스로를 보호해 주는 피난처shelter에서 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살면서 경작은 물론이고 사계절의 요소들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bridge'**를 건설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리bridge는 사건case과 힘power이라는 강물 위에 걸쳐져 있다. 이것은 서로를 가로지르도록 의도된 것이다. 한쪽 경관에서 다른 쪽의 경관으로 확장되는 것이다. 노버그 슐츠는 **'상징화란 경험된 의미가 다른 매개체속으로 옮겨가는 것translated**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것은 단순히 만들고 축조하는 것만은 진정한 의미의 건축(주거)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 자신에게 짓는다는 것, 집, '건축은 무엇인가' 혹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를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던 무언가 폭력적 구석이 있었던 주체와 객체가 분리된, 혹은 대상화시킨 사고방식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당시 서구 사상은 존재being를 현존으로서 다루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상을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것은 일반 언어로 가능하다. 그러나 존재자를 존재로 인식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무언가 다른 차원의 시적언어가 필요하다. 그러한 시적 언어만이 존재를 인식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3.2 시적표현과 건축공간

하이데거는 기술과 과학의 전제에 반대했다. 그의 생각은 시적인 언어로 '진리'에 좀 더 쉽게 다가가며, 그것이 시의 근본적인 역할이라 생각한 것이었다. 확실히 시의 언어는 단순하게 문장으로 설명하는 것을 초월하여 무언가를 포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건축비평가 카치아리Cacciari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거주를 가능하게 하는 구축방식'은 '시적詩的'이다. 집을 짓는다는 것은 시를 짓는 것이다. 그 행위는 '생성poesis'이다. 시를 쓴다는 것의 본질은 하나의 운율을 만든다는 것이다. 비거주는 대도시에서의 삶을 특징짓는 핵심적인 요인이다. 공동체gemeinschaft를 은폐하고 신화화하는 단순한 외양으로 판단하는 이상으로 뒤따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자본주의의 거대도시가 번성하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투기라는 흡혈귀를 볼 뿐이다. 거대도시의 규율의 기능적인 복수성이 마침내 그것의 모든 모순된 가치들을 자유롭게 하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분열을 본다.[3] 이처럼 거주의 핵심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음'에 있는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던 다자인Dasein이 생각날 것이다. 그것은 세계-내-존재를 떠올리게 만든다. 다시 말해 아무 장소에나 있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가져다주는 장소에서 삶을 영위하는 것이다. 거주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이라는 행위는 시적詩的이다. 집을 짓는다는 것은 시를 짓는 것이다. 이것이 장소성의 핵심이다. 그 행위는 **'생성poesis'**이다. 시를 쓴다는 것의 본질을 하나의 운율을 만든다는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 비거주는 대도시에서의 삶을 특징짓는 핵심적인 요인이다. 서구의 사상은 존재being를 현존으로서 다루고 있다.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미학적인 때로는 이 이름 그 자체이기도 하다.[4]

이렇게 하이데거는 기다림 속에서 이성의 폐해에 대하여 사유하고 그에 대한 대안적 요소를 보여주지만 있지만 여전히 기다리거나 귀기울임 정도에 머물러 있을 뿐이라고 비판할 수도 있다. 그의 연구에 내포된 의미 또한 현실적인 문제의 어떤 것에도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구축과 시詩가 현대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무엇을 위한 시詩란 말인가?' 하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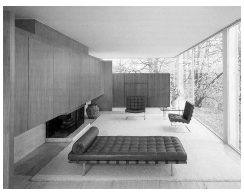
그림 5. 미스의 판스워드 주택내부

미스의 바르셀로나 파빌리온과 사무실 공간은 모더니즘 특유의 매끈함에서 오는 매력이 분명 존재한다. 그러나 그의 공간에서는 오랜 기간 살고 싶은 생각이 쉽게 들지 않는다. 모더니즘 건축의 매끈함에서 오는 비 거주성의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거주의 개념, 주변환경 및 사계절의 연결을 고려하여 거주할 공간을 생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결과적으로 건축분야에서도 이러한 **'거주'**의 개념에 근거하여 장소성과 지역성을 강조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그것이 국제주의 건축양식의 교리적 폭력성을 넘어서고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었기 때문이다.

3.3 물성의 인본적 사용과 지역주의적 태도

현상학적 사유를 통해 모더니즘 및 국제주의 양식의

3) Michael Hays 편역, 1968년 이후의 건축이론, 봉일범 역, 2003, p528

4) 같은책, p528

폐해적 특성을 벗어나고자 하는 요소들과 의도가 발전했으며 현상학적 접근방식은 후대의 현상학적, 지역주의적 건축관의 형성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과도기의 거장인 루이스 칸은 개별 방과 정원이 자연과 건축의 출발점이 된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자세는 계획 이전에 우선 사람과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주공간인 방과 그리고, 주위의 자연과 장소와 어떤 관계를 맺게 될 것인가를 먼저 고려하여 계획을 하는 것이다. 이른바 주체와 객체를 하나로 묶어서 생각하는 것이고(괄호치기), 존재자의 개념인 방으로부터 건축물로 지향성을 갖고 건축물에서 장소와 자연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에 대한 지향성이 있는 존재자의 개념을 둔 사고라고 할 수 있다. 방의 집합이 확장되어 도시를 이루게 된다. 이 과정에서 사람의 존재를 통해 관계가 형성되고 그 공간이 의미로서 다가온다. 이것은 앞서 살펴본 친숙한 현상학적 거주의 개념이다. 도시는 수많은 방의 집합이다. 심지어 가로조차도 또 다른 의미의 방들의 집합이다. 길은 방으로 이어지고 방속에도 길(복도)이 존재한다. 내부화된 도시의 의미와 하나의 관계로 통합되는 도시가 칸이 꿈꾸었던 도시일 수 있다. 칸이 생각하는 건축은 방의 집합체이다. 그는 건축이란 방의 사회를 만들어 주는 것으로 이야기했다. 이것은 단순하게 주어지는 획일적인 건축공간이 아니라 각각의 방들과의 유기적 관계로 묶여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공간을 추구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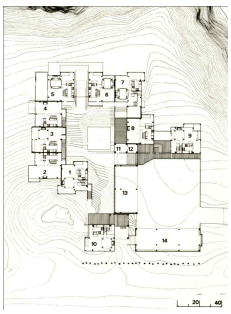

그림 6. 찰스무어의 Sea Ranch Condominium

한편, 지역주의 건축의 성향을 지닌 대표적 건축가 중 한명인 건축가 찰스 무어는 가스통 바슐라르의 주거속의 시적 이미지로부터 영감을 얻었다. 그는 이미지가 신체의 선험적 경험속에서 사람과 건축이 서로 정신적으로 융합하는 과정을 중시했다. 그는 신체와 기억, 건축의 세 가지 요소가 서로 결합되어 나타나는 이미지와 그로 인한 거주의 개념을 중시했던 것이다. 그는 또한 근대건축이 진정한 의미를 지니기 위해서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형태와 실체의 내적인 정신과 교류하는 경우에만 회복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러한 자세를 보면 판단중지와 괄호치기, 그리고 정신과 몸의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현상학적 흐름과 매우 일관되게 일치하는 면을 쉽게 떠올릴 수 있다. 무어에게 시적 이미지란 주관적인 내적 세계와 객관적인 외부세계 사이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이것은 과거가 결여된 채 그것만의 내적 의미에 의해 떠오른 생각으로써 나타나게 되었다.

장소란 단순히 주어진 공간이 아니라 콘텍스트 속에서 역사를 품고 기억이 공존하는 공간이다. 즉, 기능적인 쓰임새 이외에 다양한 것들이 교차하여 만들어지게 되는 공간인 것이다. 그것은 한순간에 만들어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시간의 기억과 역사가 쌓여 콘텍스트를 이루고 공간이 장소적 성격을 갖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장소성의 중시는 그 지역의 풍토와 기억, 역사, 이미지 등을 중시하는 흐름으로 발전했으며 이것은 결국 지역주의의 건축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지역주의 건축은 내가 무언가를 논리적인 이성으로 만들어낸다는 것보다는 지역에 잘 어울리고 사용자에게 편한함을 줄 수 있는 **'존재'**를 만들어내기 위한 태도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지역주의 건축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했던 방법론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국제주의 양식의 폭력적 동일화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되었기 때문이다.

4. 스티븐 홀의 현상학적 건축적용 방법론

4.1 스티븐 홀의 작품경향과 사유의 변화과정

동시대 건축가 중에 현상학과 관련하여 가장 대표적인 건축가는 스티븐 홀Steven Holl일 것이다. 그는 익숙한 것을 받아들이지만 그것의 익숙함과 관습적인 것을 거부하고 새롭게 독창적으로 창조해왔다. 그는 건축이 세상과 동떨어진 특별한 예술이 아니라 인류의 폭넓고 다양한 욕망을 충족시켜야 하는 예술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건축가는 현상학적인 측면을 꾸준하게 자신의 건축적 화두로 생각하고 작업을 해왔다.

"건축을 지각의 문제로 사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불신을 없애고 마음의 반쪽인 이성에서 해방되어야 하며, 단순히 유희(遊戱)하고 탐험해야한다. 이성과 회의주의는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 이 실험에서 ~ism이즘은 믿을 수 없는 것이다. 직관이 우리의 여신이다. 창조적 정신을 제거해야 한다. 이성적 판단보다는 시간속의 종합이 중요하다."[5]라고 스티븐 홀이 말한 것 과 같이 그의 현실인식을 보면 앞서 살펴본 익숙한 내용이 나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무전제의 원리, 의식의 종합, 시간의 종합, 이성의 폐해로 상징되는 이

5) 스티븐 홀, 빛과 공간과 예술을 융합하다, 이원경 역, 레베우스 우즈 서문, 미메시스, 2012

즘ism의 불신과 종합을 위한 직관의 중시를 볼 수 있다. 또한 신체를 이용하고자 하는 지각의 현상학적 접근방식도 엿볼 수 있다.

그의 주요 저작의 제목을 살펴보면 일관적인 현상학적인 사유를 건축물에 적용하고 있는 일련의 흐름을 읽을 수 있다. 1989년의 『정박Anchoring』은 대지에 따른 존재자로서의 주거 및 건축의 사고를 보이고 있다. 정박碇泊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자신의 건축물이 기존의 콘텍스트에 잘 어울리게 정박할 수 있는 지역주의적 현상학적 관점으로 계획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책을 낸 시기를 전후하여 그는 특정 대지상황에 따라 건축의 논리가 중심이 되고 건축의 의미를 대지 특유의 역사로 응축compression시키는 것에 집중했다. 그는 응축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시詩의 본질을 이야기한다. 이것은 과학적 현상을 나누어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의 종합을 통해 응축하여 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중시한다는 의미이다. 응축은 하나의 콘셉을 통해 프로그램, 장소, 공간, 디테일 등 다양한 요건들을 응축하는 것, 건축에서 축소가능한 요건이란 우리가 일상에서 맞딱뜨리는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1994년에 『지각의 문제Question of Perception』(지각에 대한 문제)에서는 지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표현해야 하는가에 대한 성찰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이 단계에서는 장소의 특수성을 굳이 언급하지 않고 '그물처럼 얽힌 경험: 사물과 장소의 융합'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그는 긴장 또는 탄력성이 거기에 존재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는 이것을 "사람이 어떤 공간을 걸을 때 그 질감과 빛, 모든 것이 하나의 경험으로 융합되는 순간을 설명하고자 했다"라고 말한다.[6]

그는 경험적 현상과 개념이 결합되는 것에 주목하고 오감五感의 지각적 현상의 상호작용을 빛, 색채, 물, 소리 등의 현상적 영역으로 분류했다. 이후 1996년의 『짜임Intertwining』에서는 이러한 사고, 지각, 직관들을 체험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서로 하나의 것으로 결합하여 짜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의 관심사를 작품으로 만든 작품집을 출판하게 되었다.

네 번째 저서 『시차Parallax』건축을 탐구하는 도구로서 과학의 활용에 대해서 썼다. 그는 이것을 진정한 실험으로 보았는데, 정신과 과학의 발견과 인식을 확인하고 그것들의 상호관계를 탐구했다. 관습적인 건축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담론을 펼치고 있다. 이 책에서 그는 정확한 사고로 창조된 과학적 세상과 정서의 세계에 다리를 놓기 위해 상상력을 자극하기 위한 새로운 기폭제의 역할을 하기 위해 사고와 감정이 융합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홀이 주목하는 현상에는 빛을 통한 인간의 신체의 인식할 수 있다. 료안지를 여름과 겨울에 방문했을 때 느껴지는 감각이 전혀 다름을 그는 마치 소설가가 특유의 세심한 감각으로 표현하고 있다.

4.2 시학적 어휘접근방법

그의 건축 스튜디오 수업에서는 항상 수업이 처음 시작되면 현상학을 먼저 공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사유와 작품 경향은 현상학적인 경향이 밑바탕에 흐르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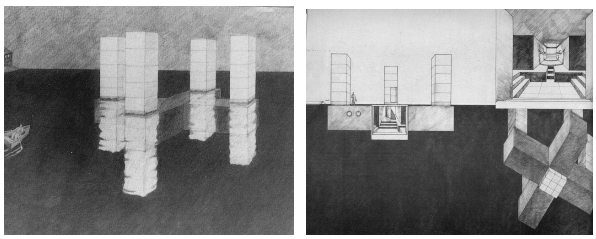

그림 7. 생 토페즈 주말주택 전경

현상학적인 느낌이 잘 강조된 그의 작품 중 하나는 프랑스 생 토페 항구의 바다에 떠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주말 별장 프로젝트인데 실현된 작품은 아니고 계획안이다. 바다에 떠 있는 이 주택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작은 배를 타고 접근하도록 되어 있다. 십자형태의 주택은 자체의 하중으로 인해 약간 물 아래 가라앉아 있고 4개의 유리로 된 빛의 기둥이 솟아 있다. 우선 진입하는 과정을 상상해보면 무언가 이상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 주택은 일반적인 주택과는 사뭇 다르다. 입구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기단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약간 가라앉은 주택의 천정 슬라브를 밟고 지나가야 한다. 이 부분은 바닷물이 발목정도에서 찰랑찰랑 파도치도록 해수면 아래로 약간 가라앉아 있다.

이 집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배를 정박시키고(빛의 기둥에 묶어놓고) 신발을 벗어 차가운 바닷물을 느끼면서 열 몇 발자국을 디디고 걸어야만 진입구로 도달할 수 있다. 별장 속으로 들어오면 십자형 중앙의 아랫부분은 바다 아래 부분을 볼 수 있도록 유리로 되어 있다. 각각의 방 부분의 십자형 끝 부분에는 빛의

6) 같은책, p24

기둥이 상부에 솟아 있다. 빛의 기둥이 있는 각기 다른 네 부분의 영역은 주거에 필요한 각 기능이 배치되어 있다. 그중 한 부분(거실)에는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해먹이 걸려 있다. 빛의 기둥(유리로 구성된 유리벽 기둥)의 상부에서는 아련하게 파도소리와 갈매기 소리가 들린다. 빛의 기둥은 약간 내려가 있는 물의 부분이 빛과 반응하여 산란되면서 물결의 빛의 그림자가 해먹 주위의 하얀 벽부분에 비치게 될 것이다. 또한 짠 맛과 바다 특유의 비릿한 냄새 등의 후각과 시각과 청각 등의 오감이 합쳐져 바다와 하나가 된 감각을 느끼는 현상학적, 몸철학적 경험이 나의 생활과 하나가 되는 주거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계획을 제시한 것이다. 이 주택은 진정한 휴식과 하늘과 바다와 내가 혼연일체가 된 듯한 충분한 감각적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주택이라고 할 수 있으며 현상학적 개념을 가장 잘 구현한 작품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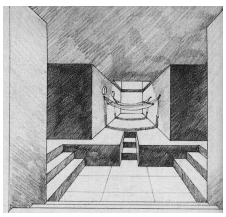
그림 8. 오감을 자극하는 주택 내부

또 하나의 작품은 베니스 리도의 대지와 그곳의 물을 매개로 한 영화의 궁전 계획안(Palazzo del Cinema, 1990)이다. 베니스 리도섬의 수로 위에 만들어진 매스들 사이로 바닷물이 출렁거리고 있다. 스티븐 홀은 이 공간 위에 위치한 극장들 매스들 사이의 틈에서는 영묘하게 내비치는 빛이 리도섬을 가득 채우도록 계획했다고 한다. 영화의 전당에서 영화제가 열리지 않을 때는 아케이드를 따라 상점이 들어설 수도 있고 혹은 보트나 요트 정박소 기능을 하기도 한다. 여기서는 공간 속에서의 시간과 빛이 다음의 세 가지로 해석된다고 스티븐 홀은 설명하고 있다. 다양한 추상적 형태를 빌어 표현되는 시간은 건축공간과 영화의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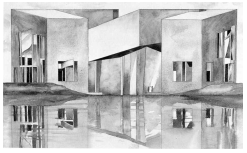
그림 9. 베니스 영화의 궁전 계획

이 작품에서 스티븐 홀은 뒤틀리고 얽힌 건물의 구조와 매스들를 통해 영화 속의 와해되고 연장된 시간을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은 매우 긴 시간을 단 1분으로 축약하거나 혹은 단 4초 사이에 일어난 사건을 무려 20분으로 늘려 편집할 수 있는 영화 매체의 특성과 비슷하다. 그는 이 작품에서 희미한 시간과 절대적 시간을 구분하여 말하고 있다.

희미한 시간 : 극장 사이의 빈 공간을 통해 아래쪽 석호로 비춰드는 햇빛에 의해 희미한 시간을 반영하고 있다. 잔잔한 물결과 반사되는 햇빛이 웅장한 극장 건물에 활기를 줄 것이다.

절대적 시간: 로비에 있는 "입방체형의 판테온" 과 같은 형태속에 투영되는 햇빛은 절대적 시간을 반영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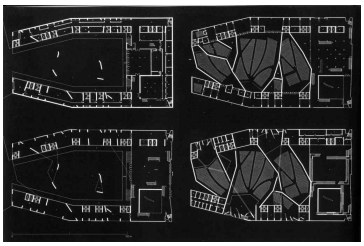
그림 10. 영화의 궁전 평면

이 작품 역시 매우 시적인 건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베니스라는 천년의 세월이 축적된 사이트와 넘실거리는 물과 뱃길, 그 곳에서의 세 가지 빛의 개념, 영화라는 매체 자체가 빛을 투사함으로써 보여지는 것, 얽혀있는 매스들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빛, 그리고 매스 밑에 넘실거리는 물을 통해 반사되는 빛이 얽히면서 건물의 입면은 넘실거리는 느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방문자는 빛의 변화, 반사되는 다양한 감각과 시간의 기억의 경험을 하게 된다.

4.3 사용자 중심의 접근방법과 은유적 교량brid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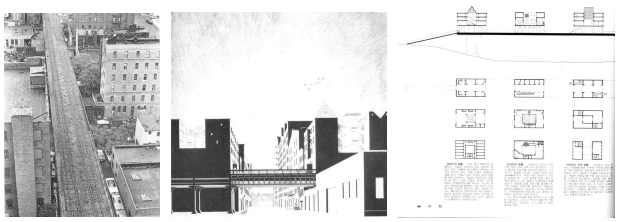
그림 11. 뉴욕 도시재생 주거의 다리 프로젝트

그의 초기 작품 중에는 교량을 주제로 하는 작품이 많다. 교량의 상징적 의미는 앞서 다자인Dasein, 즉 세계-내-존재와 연결의 의미와 개념을 살펴보았듯이 건축물과 사회와 커뮤니티, 자연과 존재와의 연결을 의미한다. 이것은 존재자로서의 연결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분리된 이성을 극복하고자 하는 상징물이라고 할 수 있으며 뉴욕 브롱스 체육관 교량 계획안이나 1991년의 주거의 다리가 그러한 개념을 담고 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존재와 연계성을 생각하면서 기존에 존재하는 다리를 철거하는 대신에 재사용하면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보행자 도로를 만드는 도시재생 계획이었다. 보행자 도로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다리는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를 가는 것 이상이며, 이것은 공존과 다양성에 대한 언급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또한 이 다리 위에 결정자의 주거, 의심자의 주거, 의견없는 자의 주거, 수수께끼, 꿈의 주거, 4개의 탑이 있는 주거, 사건과 기억의 주거를 올려놓았다. 각각의 주거에는 거주할 사람들의 행태를 먼저 생각하고 시적으로 표현하며 구축할 수 있는 계획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작품은 기존 콘텍스트에 구조적으로도 기능적으로도 매우 시적인 주거가 덧붙여져서 새로운 존재의미를 갖게 된다. 계획안에서는 교량위에 각 개념을 지닌 집들이 배치된다. 교량 자체는 앞서 논의한대로 매우 현상학적인 개념이다. 주체와 대상(객체)를 묶어서 혹은 연결해서 사유하는 현상학의 기본적인 개념으로 인해 건축분야에서는 연결의 직접적 구조체인 교량(다리) 등이 자주 사용되곤 한다. 교량은 특성과 분위기가 다른 두 콘텍스트를 연결해주고 두 가지 경계에 위치하며 자연스럽게 한가지 분위기에서 다른 분위기로의 전환 내지는 전이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특성이 있어서 현상학적 특성을 표현하기에 용이하다.

이 주거는 교량 위에 놓인다. 주거dwelling는 자연을 사계절을 공동체를 사회를 연결해주는 교량과 같은 것이라고 했다. 교량위에 올려놓은 존재자로서의 주거, 거주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존재가 될 수 있는 주거, 지향성과 괄호치기가 될 수 있는 주거, 이것이 바로 스티븐 홀이 추구하는 바였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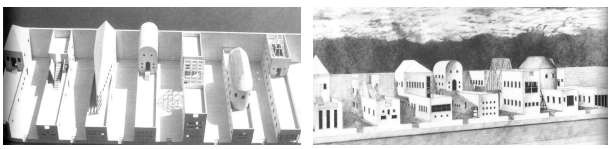

그림 12. 자치적인 장인들의 주거 계획안

자치적인 장인들의 주거에서는 기존 창고를 장인들이 사용하는 주거로 만들어지는 것으로서 각각의 창고벽에 기대어 사적 정원들이 계획되고 테라스를 가지는 구조이다. 이 주거들은 각 장인의 특성과 성격에 맞게 시적으로 적용되어 표현되면서 각 장인들의 삶의 특성과 존재를 충실히 반영하는 존재자로서의 주거들을 실현해내고 있다. 물론, 그의 작업과 공간을 구성하는 각 장인들의 특성을 완벽하게 반영하여 그들의 삶의 양식을 위한 주거를 반영한 계획을 한 것인가는 별도의 문제로 간주할 필요가 있다. 다만, 그의 작업은 단순히 살기 위한 기계가 되고자 하는 열망과는 매우 다른 것을 느낄 수 있다. 어느 곳에서도 기능할 수 있는 주거보다는 거주자를 위한, 거주자의 의미를 만들어 존재가 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현상학적 의지가 엿보인다고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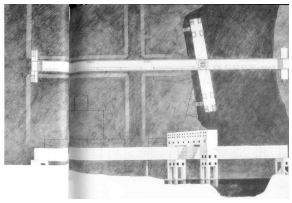

그림 13. 시간과 움직임과 관련된 뉴욕 브롱스 체육관다리계획안

국제주의 건축양식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이식시켜도 구축되어 사용될 수 있다는 오만함과 폭력성이 있는 건축이라고 한다면 그의 건축은 지역성과 존재자로서의 주거와 체험과 지각이 상호 관입되어 하나가 되는 건축을 추구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의 초기의 작품집의 제목은 정박Anchoring이다. 정박이라는 단어에서 볼 수 있듯 이 그는 독특한 대지의 상황에 따라서 건축을 마치 정박시키듯이 앉힌다.(배치시킨다) 사회적 프로그램(기능)을 풀어주면서 대지 특유의 역사에 배가 정박하듯이 함께 응축시켜 녹여내는 것이다. 건물이 특수한 대지상황에 적합하게 통합되는 것이다. 스티븐 홀은 현상학적 관점으로 존중되는 대지에 적합하게 정박시키는 것과 함께 역사와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외적 조건들을 창조적 아이디어와 함께 현상학적으로 풀어내는 능력을 보이고 있다. 장소적 의미를 부여하면서 개념을 만들어내고 이것을 현존의 현상적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이것을 통합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지각적이고 감각적인 경험을 통해 현상적인 공간으로 구체화시키고 있다. 홀은 주변 환경과의 긴장, 지각의 과정에서 외부공간을 매우 중요시 취급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는 전이공간을 집중도 높은 공간으로 재편하며 중심성이 해체된 공간을 만든다. 일괄적이고 특정한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직관적 공간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상반되는 것과의 대조/반대를 통해서 현상학적 지각은 더욱 드라마틱하게 체험이 가능하며 촉각적, 운동적, 시각적인 공간의 융합을 통해 실존적 공간을 구현하고 있다. 시각적인 것과 만져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을 함께 녹여내고 있다.

5. 결 론

스티븐 홀은 현상학적 개념을 자신의 건축주제로 일관되게 추구하고 사유하여 건축작품을 창조해왔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는 감각과 신체에 대한 계속된 주제의식을 통해 건축공간과 재료 및 분위기에 녹여내는 방법론을 사용한다. 그의 작품에서는 공통적으로 이성의 폐해로 상징되는 이즘ism의 불신과 종합

을 위한 직관을 중시하며 신체를 이용하고자 하는 지각의 현상학적 접근방식의 공통분모로 존재한다. 그의 방법론은 판단중지와 의식의 종합을 기본으로 하여 거주자와 장소성을 중시하는 '존재'의 건축을 추구한다. 또 지각의 요소를 강조하여 지역주의적 가치를 중시하는 배치와 시간, 연결, 교량과 같은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며 건축적으로 사용하며 빛의 감각을 통해 시간의 지속성과 물성을 표현하는 방법론을 사용하고 있다. 그가 고민하고 추구했던 현상학적 건축 방법론은 현대 건축에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응용가능한 것들로 가치가 충분하다.

참고문헌

1. 스티븐 홀, 빛과 공간과 예술을 융합하다, 이원경 역, 레베우스 우즈 서문, 미메시스, 2012

2. 스티븐 홀, 정박, Anchoring, 태림문화사, 1993

3. Michael Hays 편역, 1968년 이후의 건축이론, 봉일범 역, 2003

4. Steven Holl, Interwining,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1998

5. Steven Holl, Parallax,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2001.

6. Steven Holl, Questions of Perception: Phenomenology of Architecture, William K Stout, 2007

논문접수일 (2013. 11. 08)

심사완료일 (2013. 11. 19)

게재확정일 (2013. 11. 22)